

목포가 낳은 작가 천승세 '별'이 되다

81세로 타계... 대표작 '황구의 비명' '만선' '낙월도' 등 발표 근현대 최초여성작가 박화성 아들... 민족문제 토속적 세계 천착

민족과 민족문제에 천착했던 목포가 낳은 소설가이자 극작가 천승세가 지난 27일 별세했다. 향년 81세.

하동(河童) 천승세는 한국적 정한을 남도의 정서로 그려냈던 '한국문단의 가장 유니크한 작가'로 일컫는다. 한국 근현대 최초 여성 작가인 소영(素影) 박화성 소설가의 아들로, '황구의 비명', '만선'과 같은 뛰어난 작품을 발표했다.

고인이 문단에 나올 당시 많은 이들은 그의 문재에 주목했다. 모친의 문학적 핏줄 이어받은 것을 증명하듯 "단 8시간 만에 탈고를 마친 소설 '집례와 소'가 1958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된" 것은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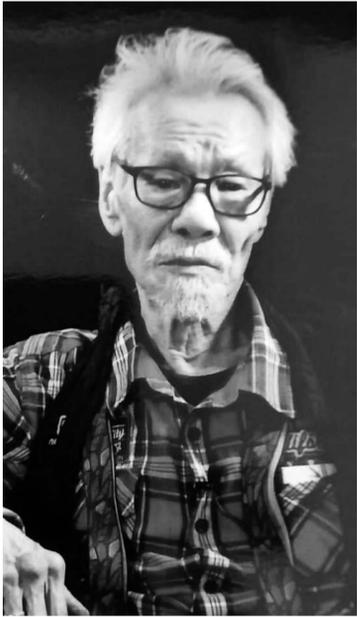
고인의 작품 일반에 가장 많이 알려진 소설 가운데 하나가 만해문학상을 수상한 '황구의 비명'이다. 1974년 8월 '한국문학'에 발표된 단편소설로, 양색시의 삶을 외세문제와 결부해 풀어낸 수작이다. 또한 황구와 수개로 대변되는 관계를 착취와 피착취라는 상징적인 장치로 보여줌으로써 억압받는 민초들에게 적잖은 울림을 주었다.

1939년 목포에서 태어난 작가는 1961년 성균관대 국어국문과를 졸업했다. 이후 신대일 기자, 한국일보 기자, 독서신문 기자 등으로 활동했다. 대학 재학시절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집례와 소'가 당선돼 일찍부터 문학적 재능을 인정받았다.

1964년에는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희곡 '물고기'가 당선됐으며 이후 1965년 희곡 '만선'이 국립극장 현상공모에 당선돼 극작가로도 활동했다.

천승세의 이러한 이력은 '목포 극작가의 계보를 잇는 대표 희곡작가'로 꼽는 데 부족함이 없다. 즉 '김우진-차범석-천승세'로 이어지는 문향(文響) 목포를 대표하는 극작가라는 의미다.

그러나, 천승세는 희곡작가보다는 소설가로서 더 문명을 떨쳤다. 월남한 반공주의자 포대령의 몰락을 그린 '포대령', 서정적 묘사와 입담이 압권인 '신궁'은 그의 문학세계를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작품들이다. 특히 필박받는 약자들의 삶을 다룬 '해자의 눈꽃', '낙월도' 등은 그의 시선이 늘 민초들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故 천승세 작가 (이승철 시인 제공)

천승세는 시인으로도 활동했다. 1989년 '장작과비행' 가을호에 신인작품으로 시를 투고해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이후 '몸곳', '산당화' 등의 시집을 펴낸 건은 일찍이 알려진 사실이다.

고인과 활발하게 교류했던 이승철 시인은 "천승세 선생님은 우리 문단에서 매우 드물게 시, 소설, 희곡 등 3개 문학 장르를 섭렵한 전전후작 작가이자, 오직 그만이 쓸 수 있는 독특하고도 개성적인 문체로 한국문단을 살찌운 작가이기도 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천 선생님께서 마지막 야전을 진두지휘하는 사령관과 같은 풍모가 있었다. 짧은 날 그가 야전사령관이 되고자 육사를 지망했다는 사실이 짐짓 이해가 될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천 작가는 어느 작가들과 다른 개성적인 외모를 지녔다. 한번 만나면 강렬한 인상을 잊을 수 없다고 말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승철 시인 또한 "천승세 작가의 그 코밑수염은 특유의 위엄을 느끼게 했고, 간혹 술김에 재미로 여기보란 듯이 자랑하는 술무경처럼 튀어나온 삼각관과 오른 팔뚝 위로 불룩 솟아오르던 알통은 나약한 문인들을 조급은 주눅 들게 만드는 묘한 마력을 갖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천 작가는 1980년대 민족문학작가회의(지금의 한국작가회의) 부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이른바 문학과 행동의 일치를 추구했던 행동주의자이기도 했다. 최근까지 한국작가회의 고문으로 추대될 정도로 그의 문학적 자장은 깊고 넓었다. 아울러 재기 발랄한 입담과 토속적·민중적 세계관, 민족적·민중적 관점은 어느 작가들과는 결이 다른 작품세계를 선사한다. 한국연극영화예술상, 만해문학상, 성육문학 대상, 자유문학상 본상 등이 이를 방증한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심성이 늘 약동하고 있었다. 그의 아호 하동(河童)에는 "여름날 개 할딱 벗고 천진스레 물장구치는 어린아이의 몸짓"이라는 의미가 투영돼 있다. 상냥자 같은 다소 거칠어 보이는 외양 이면에 순진무구한 어린아이와 같은 예술적 동심이 드러내져 있었던 것이다.

한때 천 작가는 목포 외에도 김포, 제주도, 서울 등지에서 생활했다. 그럼에도 그의 눈빛에선 목포의 먼 바다를 응시하는 듯한 깊이와 쓸쓸함이 배어나왔다. 그는 문단 후배들의 전언이다. 한국문단에서 유니크한 존재이자 목포가 낳은 위대한 작가, 그는 이제 '별'이 되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강 '소년이 온다' 연극으로 본다

광주문화재단 '휴먼 푸가' 12월 4~6일 빛고을시민문화관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를 원작으로 한 연극 '휴먼 푸가'가 광주 무대에 오른다.

광주문화재단은 연극 '휴먼 푸가'를 오는 12월 4일 오후 7시, 5~6일 오후 3시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선보인다.

연극은 올해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진행한 서울시와 광주시 간 5월 문화콘텐츠 교류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광주에서 선보이게 됐다.

'소년이 온다'는 2014년 출간된 한강의 여섯 번째 장편소설이다. 1980년 광주에서 세상을 떠난 소년 동호와 남겨진 사람들을 통해 5·18 민주화운

동을 이야기한다. '휴먼 푸가'는 '소년이 온다'를 바탕으로 극단 공연창작집단 뛰다와 남산예술센터가 공동제작해 지난해 서울에서 초연했다. 한국연극평론가협회 '2019 올해의 연극 베스트3'에 선정되는 등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연극은 1980년 5월 계엄군에 맞서 싸운 이들과 그 후 남겨진 사람들의 고통받는 내면의 실재를 탐구하는 작품으로 보편적인 연극과 달리 서사보다는 관객들이 인물의 기억과 증언을 단편적으로 따라가는 구조로 진행된다. 관객은 객석이 아니라 무대 위에 마련된 의자에 앉아 배우들과 함께 호흡하고 교감하면서 감상하게 된다.

티켓은 인터파크를 통해 예매할 수 있으며, 공연당 80석만 개방한다. 문의 062-670-7462.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류주현문학상에 이상훈 장편 '김의 나라' 선정

제16회 류주현문학상(상금 1000만원) 수상작으로 이상훈(사진)의 장편소설 '김의 나라'가 선정됐다. 25일 류주현문학상운영위원회가 밝혔다.

수상작 '김의 나라'는 신라 마지막 태자 김일의 역사적 발자취를 추적하면서 '삼국사기'로 왜곡되고 중국 '동북공정'이 훼손한 역사를 복원한다는 내용의 역사소설이다. 소설에서는 신(新)이신라(新羅)에서 금(金)과 청(靑)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나주에서 활동중인 (사)전문예술극단 예인방(이사장 김진호)의 예술감독을 맡고 있는 이상훈은 '시정론의 황제'로 불렸던 방송 프로듀서이자

영화·뮤지컬 기획자인 동시에 작가다. 1987년 KBS에 입사해 인기 작품들을 연출했고 SBS 개국 멤버로 다수 예능과 시트콤을 기획·연출했으며, 채널A 제작본부장도 지냈다. 한국방송대상, 방송 기사가 뽑은 최고의 프로그래머 등을 받았다. 류주현문학상은 대하소설 경지를 개척한 류주현(1921-1982)의 문학적 성취를 기리고자 제정됐다. /연합뉴스

'K-pop 세계적 인기 인문학적 성찰' 강좌 열린다

조선대, 다음달 21일까지 4회 김창남 교수·차우진 등 강의

방탄소년단(BTS)이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정상을 차지한 것에 이어 최근에는 미국 최고 권위의 음악상인 그래미 어워즈 후보에 오르며 또 한번 K-pop의 새 역사를 썼다. K-pop이 해외 팬들로부터 주목받는 이유는 무

엇일까? 이에 대해 인문학으로 성찰해보는 강의가 열려 눈길을 끈다.

조선대학교 인문학국플러스사업단(HK+사업단) 지역인문학센터는 전 세계에서 열광하는 K-pop에 대해 인문학적 관점에서 풀어내는 'K-pop의 새 지평을 읽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한국연구재단 후원으로 30일부터 12월 21일(매주 월요일 오후 4~6시)까지 코로나 19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펼쳐진다.

30일에는 차우진 음악평론가가 '한국 음악산업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해 강의한다. 12월 7일에는 손민정 한국교원대 교수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트루트의 정치학'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이어 김창남 성공회대 교수가 '케이팝의 역사와 문화' (12월14일)에 대해 강의를 펼치며, 이지영 세종대 교수가 '방탄소년단과 시대정신의 변화' (12월21일)를 주제로 강의한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내일 5·18민주광장서 광주시 빛고을성탄트리 점화식

2020광주시 빛고을성탄트리 점화식이 오는 12월 1일 오후 5시 5·18민주광장에서 열린다.

광주시 기독교연합회회가 주최하고 광주시와 사랑의 열매가 주관하는 이번 점화식은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모금 발대식도 함께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식전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예년처럼 색소폰 앙상블 & 세평과이어, 대학생합창연주단 공연 & 전자바이올린 & 댄스퍼레이가 펼쳐진다. 이어 식전행사로 광주시기독교연합

회의의 성금모금 발대식 선언이 이어진다.

본 행사인 성탄트리점화식은 상임부회장 남택률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며 상임부회장 박찬환 장로의 대표기도, 대표회장 이상복 목사의 성탄메시지, 이용섭 광주시장의 축하메시지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점화식은 사무총장 박병주 목사 사회로 점등자 등단, 트리점화와 축포 등의 순서로 펼쳐진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h3>제니골드(귀금속카페)</h3> <p>동구 충장4가 3-3 (광주 충장로 귀금속거리 사거리) 금(14k·18k·24k) 매입·판매 아메리카노, 자몽에이드, 진저레드, 생강차 대표 박형수 ☎ 010-8619-2954</p>	<h3>문화결혼상담소</h3> <p>북구 북동 242-4번지 초혼·재혼 상담 작명, 궁합, 풍수지리 ☎ 062]529-0315, 010-3606-5632</p>	<h3>100세의료기 나주점</h3> <p>전남 나주시나주로 211(성북동) 복지용구, 장애인, 보조기기, 환자간호용품, 위생용품 병원처방용 건강체크기, 가정소발생기대어 재활용품 각종 물리치료기, 찜질기 전동스쿠터 판매및수리 ☎ 061]930-1038, 010-8811-9116</p>	<h3>국수나무 광주신안점</h3> <p>북구 서암대로95 (신안교앞 고은@상가층) 각종 국수와 돈까스, 각종 식서류 ☎ 062]531-0331, 010-5511-0331</p>
<h3>국수나무 광주용봉점(비엔날레)</h3> <p>북구 용봉동 1091-4(M-타워KB국민은행건물) 모든 메뉴 포장 및 배달가능 직접 전화 및 배달주문(배달의민족, 오기요) ☎ 062]526-5475, 010-8621-5959</p>	<h3>법무사 이영석사무소</h3> <p>동구법실로 16-1(지산동) 부동산등기, 매매설계, 상속, 증여 등 상담등기 회사설립, 임원변경등명서, 고소장, 항고장 신청 각종가압류, 가처분, 경매, 공매입찰기법법률상담 ☎ 062]226-7220, 010-3666-7220</p>	<h3>보광세탁소</h3> <p>동구지산1동 동명로73-2(구,농장다리앞) 각종의류세탁, 양복·양장 각종의류 수선전문업소 ☎ 062]227-6815, 010-6681-5412</p>	<h3>법무사 김은희사무소</h3> <p>목포시 정의로26-4 범조하우스 3층 개인회생, 파산면책, 가압류, 가처분, 민사소송 강제집행, 채권추심, 부동산등기, 선박등기 법인등기, 상업등기, 신탁등기, 공탁 ☎ 061]284-3005, 010-9477-4872</p>
<h3>동양철학원</h3> <p>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함. ☎ 062]224-7687, 010-2611-7687</p>	<h3>필스제화</h3> <p>동구 산수동 553-73(산수5거리 옛골다리쪽) 구두수선 남화·여화창 굽같이 가방지퍼수선·염색·광택 ☎ 010-4755-9294</p>	<h3>인철(仁喆)익스프레스</h3> <p>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p>	<h3>웅추해신삼계탕</h3> <p>북구 저불로93(용봉동3차현대아파트뒷편) 각종 삼계탕 전문식당 각종 모임 환영, 연회석 완비 깨끗하고 조용한 분위기 친절·신용·분위 ☎ 062]523-1003, 010-5355-0867</p>
<h3>고전방</h3> <p>동구 공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p>	<h3>남도철학원</h3> <p>북구 전변우로79번길87(임동) 수강생 수시모집! 사주, 작명, 출산, 택일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지도 ☎ 062]522-9653, 010-8645-2254</p>	<h3>신신예술의집</h3> <p>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p>	<h3>대연건설</h3> <p>동구 제봉로 190번길 7-1(대인동) 건설행·설비·토목·공장·수도·하수도 ☎ 062]236-1510, 010-2630-4820</p>
<h3>평화이사소파</h3> <p>북구 운암동 794-13(대자초등학교 옆) 가정용, 영업용 불박이, 료소파, 업소용제작 천장이 리폼전문 각종 소파 천장이 수리 및 제작 전문공방 ☎ 062]371-2110, 010-9404-3571</p>	<h3>석당화랑</h3> <p>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p>	<h3>하나부동산사무소</h3> <p>동구 계림동 254-4번지 주택·상가·토지·공장부지·임야 전문 각종 부동산매매 상담, 신용 본위 ☎ 062]233-5155, 010-3615-5155</p>	<h3>초대화랑</h3> <p>동구 공동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p>
<h3>매산철거·삼보소개소</h3> <p>북구 자산로 32 (신안동) 건물상가·집수리, 오래오래 폐기물처리, 고철 파지, 스티븐 특수기장, 조적, 방수, 철근, 콘크리트페인트 용접, 보일러수리, 비계, 잡·인부알선 ☎ 062]528-7005-6, 010-3625-2786</p>	<h3>박당화랑</h3> <p>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 대표 박한승 ☎ 062]222-6866</p>		